

한국인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청소년,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김애리나[†]

이화여자대학교

급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사회 문화적 판단 기준의 하나로 여성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청소년을 대표하는 고등학교 1, 2 학년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사용된 척도는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WS)와 여성주의에 대한 의미구분 척도(SDS), 그리고 개방형 질문이었다. 연구내용은 여성과 남성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비교와 연령에 따라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차이가 어떤지를 파악하여 현재 한국에서의 사회적 태도의 흐름을 알아 보는 것이었다. 남성중 가장 긍정적인 집단이 여성중 가장 부정적인 집단보다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아 더 부정적이었다. 연령에 따른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는 여성들 가운데는 가장 나이가 어린 여학생들이 가장 진보적이었으나, 남성들 가운데는 남학생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여성주의에 대한 차이가 교사의 남녀 차이나 학부모의 남녀 차이보다 더 심하였다. 여성들 중에서 어머니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고 전통적이었으며, 한국의 여성주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남녀 차이가 여전히 심하고,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사고가 여전히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나이가 가장 어린 청소년 남성(남성 고등학생)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전통적이고 부정적인 사고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주요어 : 여성주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여성에 대한 태도, 성역할 태도, 성역할 이데올로기

[†] 교신저자 : 김애리나, 이화여자대학교, 02-3277-2637,
E-mail : kerina0213@hanmail.net

최근 한국사회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과 남성의 행동과 능력의 구분, 또는 남녀 역할에 대한 차별화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말하자면, 어느 부분에서는 동등성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많은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양가적 사고의 흐름은 한국적 사회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의식변화와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라고 할 수 있으며(유순희, 2001; 김영정, 1999), 198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운동도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가면서 한국 학계에서도 여성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성문제와 여성주의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여성에 대한 연구와 남녀 성역할에 대한 연구, 또는 남녀 평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 와서 였다(김영희, 1995; 윤가현, 1991; 장상희, 1999; 장하경, 서병숙, 1991). 참여 정부의 제 17대 총선(2004년 4월)에서 여성 국회의원 수가 지역구에서 10명, 비례대표에서는 29명이 선출되어 전체 의석수 299석 중 39석이 되었고, 원내의 13%를 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17대 국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프랑스(12.2%)와 이탈리아(11.5%), 일본(7.1%)보다 높아, 16대 국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101위였던 것이, 국제의회연맹 182개국 가운데 세계 6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문경란, 2004; 신보영, 2004). 여성의 능력 향상과 발휘도 다분히 인정받게 되었다(김동섭, 2004).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 상황과 정보 전달 수단에 의해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전달되고 자극을 주는 현실 상황에서, 외부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유가호, 1994). Erikson(1963)은 심리 사회학적 발달단계 중 네 번째 단계인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시기로 보았고, 그들의 자아정체감은 개인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장종선, 1995). 지각과 사고와 행동의 주체로서,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인간의 현상학적 지각이 인간행동의 중요한 결정인자라면(Hall & Lindgey, 1978), 여성 역할에 관한 태도도 주위 환경에서 많은 자극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녀의 가치관 형성과 인격형성에는 정보 통신과 매스컴의 자극적인 영향도 크겠지만, 가정 안에서의 부모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주장이 많다(김현준, 2001; 심응철, 1992; 장종선, 1995). 부부간의 역할 구분에 대한 개념도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녀들의 성에 따른 역할 구분에 반영된다는 연구 결과(장하경, 서병숙, 1991)도 있다. 자녀들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 부모의 태도와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Thornton, Alwin, & Camburn, 1983). 또한 여성에 대한 태도 연구를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Twenge(1997)는 성역할 태도에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린이들이 경험한 가족환경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Bankart, 1984; Bigler, 1997; Matsuyuki, 1998; Parry, 1983; Rice & Coates, 1995; Spence & Hahn, 1997; Twenge, 1997)에서 볼 수 있듯이, 남정보다는 여성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부모와 교사들보다는 학생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일 것이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남녀 간의 비교와 각 집단간의 차이를 봄으로써, 한국 남성과 여성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가설은 '1.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나이가 젊을수록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 진보적일 것이다' 이다.

여성주의(Feminism)의 개념과 발달

여성주의는 여성의 권리와 남성과의 평등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Robbins & Siegel, 1985). 여성주의란 용어는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며, 복잡적이고 다양한 설명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주의는 이데올로기적인 철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심리학적 접근들과는 달리 뚜렷한 주장자가 없으며 그 기본 이론과 정의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Brown, 2000; Brown & Brodsky, 1992). 이같이 여성주의는 여러 관점에서 다른 철학과 연관되어 조금씩 다르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단일화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발달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주의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여성주의 관점들이 다음의 세 가지의 개념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 첫째, 인간과 모든 현상들은 독단적이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둘째,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연결되어 있어서 오히려 장소나 입장에 잘 맞게 조화되어 있으며, 우주적이다. 셋째, 사회는 제도화된 수컷중심주의(androcentrism)와 그에 수반되는 힘의 구조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Miller & Scholnick, 2000).

이와 같이, 여성주의자(feminist)라고 하면, 대

체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본다(Enns & Hackett, 1990). 그러므로 여성주의가 표명하고자 하는 점은 여성의 권리와 남성의 권리 사이의 동등성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를 내세우는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부정적인 기존 관념이 변화하기 어려운 것은,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생활 습관과 지금까지의 생활이 더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여길 뿐 아니라, 남성이 특권을 가진 것에 익숙해진 보편적 사고 체계와 생활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성주의의 발달은 시대상황이나 사회적 발전과 흐름에 병행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1890년에서 1910년 사이 전 유럽에 걸쳐서 일어난 이데올로기 혁명의 새로운 사고가 가부장적 시민화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한다(Eckardt, 1994). 1967년에 Horney는 Freud의 남성 지향적 심리학을 지적하고, 왜 프로이트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프로이트가 어릴 때의 환경을 들어 설명했다. Horney보다 30년 선배였던 Freud의 시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고, 더구나 Freud는 남성이 곧 주인이고 중요한 존재였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Horney의 여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여성 연구의 발달에 큰 기반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여성주의는 자유적 여성주의(Liberal Feminism)의 사고와 가장 비슷하다(Beasley, 1999). Mill(1970)의 '여성의 주체'에서 주로 영향을 받은 자유적 여성주의는 문화적인 제약과 사회적으로 불균등한 정책과 법적 제약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온다고 믿는다(Braverman, 1988). 따라서 이들은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요구한다(Friedan, 1963).

이에 비해 급진적 여성주의(Radical Feminism)는 남성 자체를 여성의 억압자라고 주장하며(Enns & Hackett, 1990; Wehr, 1987),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가부장제이므로, 가부장제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 뿐 아니라, 가부장제의 사회적, 문화적 기관들도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Tong, 1993).

한국의 여성주의는 1950년대에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사회적 변화의 흐름, 그리고 1970년대의 여성학의 도입과 함께 성장해 왔다(이희경, 2001). 1970년대에는 주로 가족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성단체들의 운동이 많았고, 인권운동과 민주화 운동,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소수 여성층의 지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서서히 여성운동의 힘이 활성화되고 커지기 시작했다(유순희, 2001). 특히, 1978년에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강좌가 처음 시작된 것이 한국의 여성주의 발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82년에는 대학원 여성학과가 설치되었고, 1984년에는 한국 여성학회가 창립되었다(김영정, 1999).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 억압이 가부장제 체제에 의해 발생 유지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여성 문제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진시켰다(김현정, 2000).

최근 국민의 정부 이래 여성부(참여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로 바뀜)가 정부기관에 설치되면서 부쩍 늘어난 여성등용이 참여정부에 와서는 더욱 상승하고 있어, 여성에 대한 인정과 처우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또한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게 뒤질 이유가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공무원, 기업 공채 시험마다 여성 합격자가 급증하고 있고, 2004년

4월에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 합격자 중에서 수석을 포함한 10등까지의 여성 합격자가 6명, 전체 합격자 223명중 여성이 49%(110명)였다(김동섭, 2004).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일어났던 현상이다.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도 여성이 많고, 여성 사업가나 정치가 중에도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경향에 맞추어 한국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등용 증진 정책은 당연한 당위성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연구

처음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측정은 1936년에 Kirkpatrick이 그 당시 미국사회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80 문항의 신념 유형 척도(Belief-Pattern Scale)로 시작되었다(Kirkpatrick, 1936). 그 후, Spence와 Helmreich(1972)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주의자 활동의 결과로서 사회의 여성에 대한 태도 변화를 평가하려고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WS)를 개발했는데(Frieze & McHugh, 1998), AWS는 Kirkpatrick의 신념유형척도의 문항을 기초로 제작되었다(Parry, 1983). 1973년에는 다시 25문항의 단축형을 개발하였다(Spence, Helmreich, & Stapp, 1973). AWS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주류 여성주의로 생각되는 자유적 여성주의를 측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Frieze & McHugh, 1998), 이 척도로 보수 전통적 사고와 자유 진보적 사고를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발달 맥락에 따라 여성에 대한 태도 측정은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측정, 혹은 성역할 태도 측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과 시대에 맞추어 성역할 태도

가 성공적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여성주의자 특성과 성역할 태도도 함께 변화하였고 (McHugh & Frieze, 1997), 1983년에 Parry는, Spence 등이 개발한 축소형 AWS를 22문항으로 단순화시켜 영국화 하였다.

한국에서는 윤가현(1991)이 Parry(1983)의 AWS-B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한국 문화권에 적용되지 않는 두 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3개 문항을 또 다시 삭제하고 남은 17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여 한국판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 (The Korean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WS-K)라고 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sex role stereotype)이 많은 특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고 믿는 것이고(Spence *et al.*, 1973), 성역할 태도(sex role attitude)가 일터에서와 가정에서의 역할들이 성별(gender)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 신념이며, 넓은 영역의 사회화 요인들의 영향을 대변해 주고 자녀 양육과 집 밖의 일에 대한 개인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Spence & Helmreich, 1972).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문화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반영하고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행동과 그들의 관계에 관한 규범적인 신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유가효, 1994),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태도, 그리고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개념들은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 즉 여성과 남성의 태도에 대한 고정관념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태도가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 근원이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feminism)는 여성에 대

한 태도(attitudes toward women), 성역할 태도 (sex-role attitude), 또는 성역할 이데올로기 (sex-role ideology)등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청소년과 여성주의 이데올로기

청소년기를 설명할 때 많은 학자들이 자아 정체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Erikson (1960)이 정체감이라는 단어를 획기적으로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은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데 개인의 정체감에는 여러 가지 동일시가 포함된다. 여러 부분적인 동일시들을 개인의 고유한 전체성으로 통합해 나갈 때 비로소 일관된 자아정체감을 이룰 수 있다(현희순, 김양순, 1999). 이 시기의 자아 정체감이란 경험을 통한 자아 능력과 그 동안 축적해 온 확신에서 나오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중요하며,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다(현희순, 김양순, 1999).

Thornton 등(1983)은 어머니의 태도와 자녀들의 태도가 연관성이 있으며, 어린이들의 비전통적 태도를 만드는 데는 아버지의 교육이 강한 효과가 있어서 사회화 과정에서의 아버지 영향의 강력함을 강조하였다.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연령이 딸의 성역할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이부연, 1993; 정종희, 1983). 또한 중학교 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 교사가 남성 교사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자기평가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이경률, 1993).

성별(gender)은 모든 사람들의 자아개념 형성

의 중심적 구성요소이므로 개인적인 정체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Williams & Best, 1990).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역할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 등이 부모 자녀 간의 영향뿐 아니라 교사들의 성역할 태도와도 연관이 있고, 성역할 태도 또는 성역할 이데올로기 등이 청소년의 지각 수준에 영향을 주어 여성주의나 여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개념 형성에도 연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여성주의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태도가 학생들의 태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서울 외곽에 위치한 6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학교는 남녀 공학이 3개, 여자고등학교가 2개, 남자고등학교가 1개였고, 강북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2개, 강남에 위치한 학교가 2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2개였다. 6개 학교의 1, 2학년생 605명(남 249, 여 356), 교사 196명(남 106, 여 90), 그리고 학생들의 부모들 592명(부 253, 모 339)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학생들의 분포는 강북 2개 학교의 231명, 강남 2개 학교의 205명, 외곽 지역 2개 학교의 169명이었고, 학부모는 강남이 141명, 강북이 202명, 그 외 지역의 학교가 249명이었으며, 교사의 분포는 강북이 66명, 강남이 64명, 그 외 지역이 66명이었다.

측정 도구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WS)

이 연구에서는 1983년에 Parry가 만든 영국형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WS-B) 22문항을 연구자가 예비조사 하여 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한 것을 사용하였다. 169명을 대상으로 한 22문항의 조사 결과, 5개의 문항은 Cronbach α 를 이용한 문항분석에서 신뢰롭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되어 17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17개 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 α 는 .84이었으며,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재 실시 되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6 이었다. 신뢰도 수준이 만족할 만한 정도가 되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를 측정하는 척도가 일반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태도 척도이어서 신뢰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0이 평가기준이라는 연구가 있다(Rybarik, Dosch, Gilmore, & Krajewski, 1995). 총점의 범위는 7점에서 119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을 타나낸다.

이 척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의미구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

이 논문에 선택된 10개의 형용사 쌍은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 의미있다/의미없다, 중요하지 않다/중요하다, 어리석다/현명하다, 좋다/나쁘다, 가능하다/불가능하다, 적절하다/부적절하다, 구속적이다/자유롭다, 건전하다/건전하지 않다, 쓸모없다/쓸모있다 이다. 이러한 형용사 쌍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자가 실시한 예비연구결과 형태계수행렬에서 .3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형용사 쌍에 속할 뿐 아니라,

평가적 요인에 속하는 형용사들이 태도 측정에 사용될 수 있다는 Osgood(1952)의 연구에 따른 것이다.

예비연구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SDS 척도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40개 형용사 쌍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축요인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aiser기준, 누적변량백분율, 그리고 scree도표를 이용하였다. 단순요인구조를 얻기 위한 회전방법으로 요인 간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Oblimin with Kaiser Normalization)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3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9.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연구에서 SDS 척도의 3개 요인에 대한 Cronbach α 는 요인 1이 .93, 요인 2가 .62, 요인 3은 .81 이었으며, 각각 평가성, 활동성, 잠재성의 차원을 보여주었다.

여성주의에 대한 각 항목의 형용사 쌍은 긍정적 반응에서 부정적 반응의 방향으로 1점(가치 없다)에서 7점(가치 있다) Likert척도 상에 응답자가 표시하게 하였다. 형용사 쌍의 배열은 긍정적에서 부정적 순서와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순서를 섞음으로써 순서효과를 상쇄하도록 배치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70점으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으로 본다.

개방형 질문

3 가지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에 응답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질문에 먼저 “여성주의가 페미니즘”이라는 것과 ‘여성주의는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기록하여 알려 주었다. 개방형 질문은

“1) ‘여성주의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2) 어느 날 당신의 따님이 자신을 ‘여성주의자’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당신이 학생이라면 나중에 딸을 갖게 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3) ‘여성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이다.

개방형 질문이 타당도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두 가지 척도와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개방형 질문과 AWS와의 상관은 $r = .259(p < .001)$, 개방형 질문과 SDS와의 상관은 $r = .528(p < .001)$ 이었다.

연구 절차와 자료처리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 후에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2주일 기간을 주고 답하게 하였다. 교사들에게는 질문지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학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을 통하여 질문지를 각 가정으로 전달되었다. 이 때 각 부모에게 1부씩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질문지를 응답할 때 주의해야 할 점(가능하면 한번에 모든 응답을 하도록 할 것, 누구와 상의해서 답하지 말고 혼자서 조용히 질문에 응답해 줄 것 등)을 적은 용지를 따로 첨부하였다. 질문지는 모든 응답자들에게 똑같이 배분되었고, 인적사항에 나이와 교육정도 등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이는 만으로 기록하게 하였고, 교육은 고졸과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나누어 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20에서 35분 정도였다.

자료처리는 SPSS 10.0을 사용하였고, 변량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Tukey 사후검증을 하여 분석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자

료 처리는 각 응답에 대한 범주화 기준을 세워 각 질문의 응답이 긍정적인 답은 +1, 중립적이거나 무응답, 혹은 답의 내용이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내용이 들어 있을 경우는 0, 답이 부정적인 내용일 경우는 -1로 처리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데는 몇 단계의 과정이 필요했다. 먼저, 연구자는 예비 평정을 하여 3 가지의 범주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자는 현재 심리학과 석사과정을 수료 중인 4명의 평정자를 선정하였다. 그 다음 개방형 응답지 전체 수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지를 무작위로 뽑아서 이들 4명의 평정자들에게 연구자가 설정한 범주 분류 기준표를 주고 범주화 분류에 대하여 5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실습하여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그런 다음 4명의 평정자들이 응답지를 독립적으로 평정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는 Kappa 지수와 유목 내 상관 지수인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개방형 응답 1, 2, 3에 대한 Kappa 지수는 각각 .73, .68, .75로 산출되었고, ICC는 무선으로 표집된 모든 응답자들이 무선으로 선정된 평가자들에 의해 평가되었을 경우에 사

용되는 ICC(2, 1)로 산출하였으며, SPSS의 ICC는 각각 .82, .80, .79 였다.

개방형 응답에 대한 범주화 기준 분류표는 부록 2에 제시 하였다.

결 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응답지 총 1471 부에서, 불성실하고 적절하지 못한 응답지(무응답지나 일관된 답이 많은 응답지) 78부를 제거한 후 자료 분석에 사용된 응답인원은 학생 605명(남 = 249, 여 = 356), 학부모 592명(남 = 253, 여 = 339), 교사 196명(남 = 106, 여 = 90)으로 총 1393명이었다. 학생의 나이 평균은 16.55세($SD = .87$), 학부모는 45.10세($SD = 3.85$), 교사의 나이 평균은 40.42 세($SD = 9.55$)였다. 학부모의 학력은 고졸까지가 232명, 대졸이 281명, 대학원 이상이 53명이었고, 교사는 대졸이 119명, 대학원 이상이 77명이었다.

성별과 집단(학생, 학부모, 교사)에 따라 여성에 대한 태도 점수가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AWS 점수에 대한 2(성별: 남, 여) × 3(집단: 학생, 학부모, 교사) 요인설계에 따른 이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2에 보여지는 변량분

표 1. 여성에 대한 태도(AWS)의 이원변량분석

변인	<i>df</i>	<i>F</i>	<i>η</i>	<i>p</i>
성별	1	213.58**	.36	.00
집단	2	64.69**	.29	.00
성별 × 집단	2	17.72**	.16	.00
오차	1387			
전체	1392			

** $p < .001$

표 2. 각 집단별 여성에 대한 태도(AWS)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남성		여성		전체	
	M	SD	M	SD	M	SD
학 생	4.81b	.76	5.72b	.59	5.35c	.80
학부모	4.60a	.78	5.00a	.72	4.83a	.77
교 사	4.88b	.80	5.55b	.93	5.19b	.92
전 체	4.74	.78	5.39	.77	5.11	.84

주. a, b, c는 남성, 여성, 전체에 대한 집단의 Tukey 사후검증 결과를 나타냄. 평균값 옆에 첨부한 알파벳 문자가 같은 평균 사이에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 각각 다른 알파벳 문자와는 차이가 유의미함을 말함. 표 4, 표 6도 같은 의미임.

석결과 성별의 주효과 $F(1, 1392) = 213.58, p < .001$, 집단의 주효과 $F(2, 1392) = 64.69, p < .001$, 성별과 집단과의 상호작용효과 $F(2, 1392) = 17.72, p < .001$ 이 모두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성별집단에 따라 단순주효과분석을 한 후, Tukey 사후검증(HSD)을 실시하였다.

AWS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각 집단에서 여성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남성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그대로 수용되었다.

AWS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가장 연령이 낮은

고등학생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M = 5.35, SD = .80$) 점수가 높아서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사($M = 5.19, SD = .92$)가 그 다음이고, 학부모($M = 4.83, SD = .77$)가 가장 전통,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수용되었다. 남성들 가운데서는 아버지들의 태도가 ($M = 4.60, SD = .78$)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여성들 가운데는 어머니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M = 5.00, SD = .72$)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또한, 남성 중에서 가장 긍정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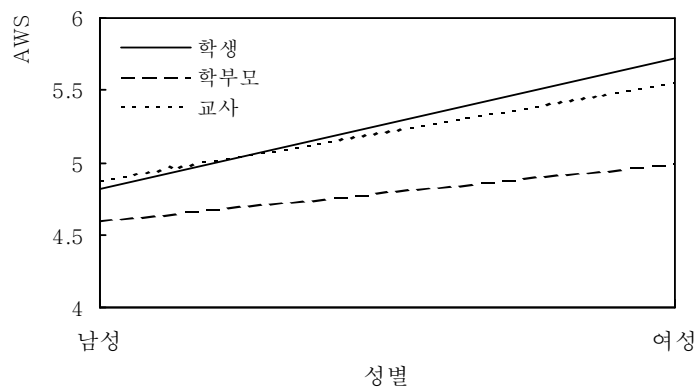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응답자에 따른 AWS 점수

표 3. 형용사 의미구분척도(SDS)의 이원변량분석

변인	df	F	η	p
성별	1	95.44**	.25	.00
집단	2	2.71	.06	.07
성별 × 집단	2	17.18**	.15	.00
오차	1386			
전체	1391			

** $p < .001$

를 가진 교사($M = 4.88, SD = .80$)보다 여성 중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어머니($M = 5.00, SD = .72$)의 평균이 더 높게 나왔다. AWS에서의 집단별 남녀 차이를 보면, 남학생($M = 4.81, SD = .76$)과 여학생($M = 5.72, SD = .59$)의 점수 차이가, 학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의 남녀 차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형용사 의미구분척도(SDS)에 대한 이원변량 분석 결과에서 성별의 주효과 $F(1, 1391) = 95.44, p < .001$ 과, 성별과 집단간의 상호작용 효과 $F(2, 1391) = 17.18, p < .001$ 이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집단 주효과는 $F(2, 1391) = 2.71, p = .07$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SDS 결과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면 남성 집단에서는 남학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

고 여성 집단에서는 여학생과 여성교사의 점수가 어머니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SDS 결과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학부모와 교사들보다 더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집단별 남녀 차이를 보면, 여학생($M = 5.47, SD = 1.04$)이 남학생($M = 4.34, SD = 1.05$)보다 점수가 높았고, 어머니($M = 5.05, SD = 1.13$)가 아버지($M = 4.61, SD = 1.15$)보다, 여성 교사($M = 5.23, SD = .98$)가 남성 교사($M = 4.84, SD = 1.09$)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서, 각 집단에서의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므로, 가설 1이 수용되었다.

표 4. 형용사 의미구분척도(SDS)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남성		여성		전체	
	M	SD	M	SD	M	SD
학 생	4.34a	1.05	5.47b	1.04	5.00	1.18
학부모	4.61b	1.15	5.05a	1.13	4.86	1.16
교 사	4.84b	1.09	5.23ab	.98	5.02	1.05
전 체	4.54	1.11	5.26	1.09	4.95	1.16

주. a, b 는 Tukey 사후검증 결과임.

SDS에서도 학생들의 남녀 차이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여학생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M = 5.47, SD = 1.04$)가 모든 집단 가운데서 가장 긍정적이었고, 청소년 남학생 집단($M = 4.34, SD = 1.05$)이 다른 모든 집단보다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M = 5.05, SD = 1.13$)가 가장 부정적,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남성 집단 중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사 집단의 점수($M = 4.84, SD = 1.09$)보다 여성 집단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어머니 집단의 점수(M

$= 5.05, SD = 1.13$)가 더 높게 나왔다.

개방형 응답에 대한 채점은 연구자가 훈련한 평가자들에 의해 부정적 반응, 중립적 반응과 무응답, 그리고 긍정적 반응의 3단계로 분류하고, 각각 -1, 0, 1 점으로 점수를 주었다. 각 응답자의 응답 점수 범위는 -3 에서 3 점 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 점수들을 합계하여 이원변량분석 하였다. 개방형 질문 응답자에 대한 $2(\text{남, 여}) \times 3(\text{학생, 학부모, 교사})$ 요인 설계에 따른 변량분석에서 성별 주효과 $F(1, 1183) = 58.28, p < .001$, 집단 주효과 $F(2, 1183) = 7.86, p < .001$, 그리고 성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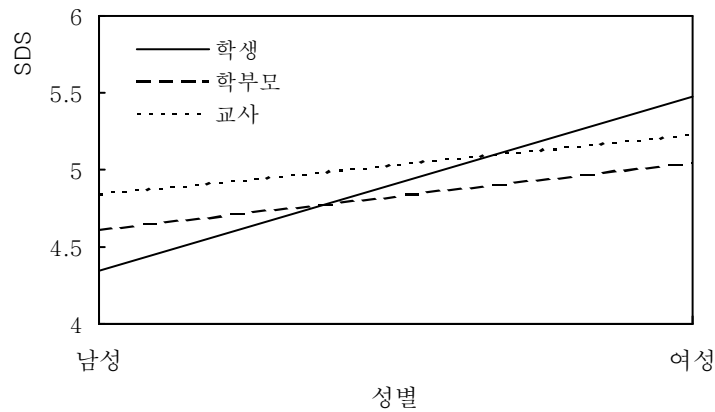


그림 2. 성별과 응답자에 따른 SDS 점수

표 5. 개방형 질문의 이원변량분석

변인	df	F	η^2	p
성별	1	58.28**	.22	.00
집단	2	7.86**	.11	.00
성별 × 집단	2	4.74*	.09	.01
오차	1178			
전체	1183			

* $p < .01$ ** $p < .001$

표 6. 개방형 질문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남성		여성		전체	
	M	SD	M	SD	M	SD
학 생	.05a	1.82	1.40a	1.71	.85a	1.87
학부모	.56b	1.96	1.26a	1.80	.96ab	1.90
교 사	1.00b	1.81	1.68a	1.72	1.33b	1.79
전 체	.42	1.90	1.38	1.75	.97	1.88

주. a, b 는 Tukey 사후검증 결과임.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F(2, 1183) = 4.74$, $p < .001$ 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연령별로 보는 가설 2의 검증에서는 이 개방형질문으로 그 차이를 보기 어려웠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로는 교사들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M = 1.33$, $SD = 1.79$), 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M = .85$, $SD = 1.87$).

개방형 질문에서 세 집단의 성별간 차이를 보면, 학생집단의 남학생($M = .05$, $SD = 1.82$)과 여학생($M = 1.40$, $SD = 1.71$)의 차이가 학부모 집단의 아버지($M = .56$, $SD = 1.96$)와 어머니($M = 1.26$, $SD = 1.80$)와의 차이나 남성 교사($M = 1.00$, $SD = 1.81$)와 여성 교사(M

$= 1.68$, $SD = 1.72$)와의 차이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들 사이에서는 남학생($M = .05$, $SD = 1.82$)의 태도가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각 집단 간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의 각 척도에서 보면, 청소년 학생들이 성인으로 대변되는 교사와 학부모보다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이라 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AWS와 SDS에서는 학생 집단과 교사 집단의 평균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평균이 의미있게 가장 높았고, 남학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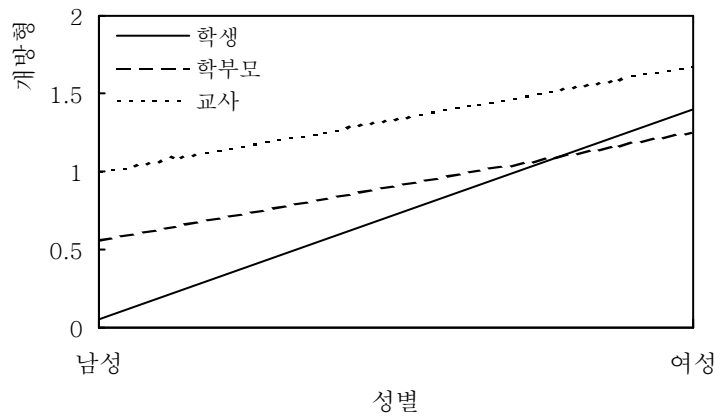


그림 3. 성별과 응답자에 따른 개방형 응답 점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개방형 질문에서는 남학생이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으나, 여성들은 여학생, 여성교사, 어머니의 점수 차이에 유의미성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성 가운데서 가장 진보적인 집단의 태도가 여성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집단보다 항상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논 의

여성에 대한 태도 혹은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측정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적 개념과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성역할 정체감 형성과 관련되고(Hardie & McMurray, 1992; Williams & Best, 1990),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유가효, 1994), 청년기 때는 자신의 존재, 사회적 역할, 자신의 목표와 운명에 대한 통제를 의식하게 된다(Erickson, 1963).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한국의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와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한국사회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혹은 성역할 태도가 더 긍정적이고 진보적인가?’ ‘나이가 젊을수록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거나?’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17문항의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WS)와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의미구분척도(SDS),

그리고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교사, 학부모, 학생 집단에서 여성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남성들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다’는 가설에 대한 결과는,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WS)와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보는 형용사 의미구분척도(SDS)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각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선행연구들이 발표한 것과 일치하였다(윤가현, 1991; 장하경, 서병숙, 1991; Bankart, 1984; Rice & Coates, 1995; Spence *et al.*, 1973). 그러나 개방형 질문에서는 교사들의 응답이 가장 진보적이었는데, 이 개방형 질문은 모두 주관적으로 답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그다지 흥미로운 검사가 아니었을 것이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 본적이 없을 뿐 아니라, 딸이 있을 때를 상상해서 답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과 부모들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이 교사들보다 더 긍정적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 가운데 가장 진보적, 긍정적인 집단보다 여성 가운데 가장 전통적, 부정적인 집단인 어머니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이 점은 선행연구들(김양희, 정경아, 2000; 윤가현, 1991; Bankart, 1984; Bigler, 1997; Matsuyuki, 1998; Parry, 1983; Spence & Hahn, 1997)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윤가현(1991)의 연구에서 성교육을 받고 난 후의 남학생의 여성에 대한 태도보다 성교육을 받기 전의 여학생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성들의 사회적 역할 태도나 개념은 여전히 전통적이며, 여성에 대한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집단인 학부모보다는 고등학생과 교사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고 진보적이었으나, 학생집단과 교사집단의 차이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남성 가운데는 남성 교사가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는데, 여성 집단에서는 여학생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여성 교사와 어머니들보다 더 긍정적, 진보적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Kiecolt & Acock, 1988; Rice & Coates, 1995; Thornton *et al.*, 1983)들에 대해서, 여성 집단에서만 부응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고등학교 교사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학부모들보다 더 진보적인 것은, 교사들 가운데는 아직 미혼인 교사와 젊은 교사들도 있어서 전체 연령이 더 젊다는 점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고, 또한 청소년 고등학생들과의 생활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지각이 일반인들보다 더 빠르고 민감할 것이라는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교사들의 교육 정도가 대졸 이상이어서 부모들보다 교육정도가 높고, 학부모보다는 사회를 이해하는 태도가 더 열려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여성들 가운데서는 어머니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보인 것에서 사회의 요구에 거슬리지 않으려는 어머니들의 태도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4년에 Bankart가 일본에서

남녀 대학생과 결혼해서 자녀를 둔 여성들을 비교한 논문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의식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여성들의 남아선호의식이 여대생들보다 4배나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상기시킨다.

특히 여성들 가운데 어머니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와 의식 수준이 가장 부정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하여도, 한국 남성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여성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어머니들보다 더 부정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사회문화적 성역할 태도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음을 말해 준다. 정부의 정책, 사회적 제도개선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포함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사고 개념은 상당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가 여전히 전통적 개념을 고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태도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남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다른 교사와 학부모 집단의 남녀 차이보다 크다는 연구들 뿐 아니라(Benson & Vincent, 1980), AWSA(The Attitudes toward Women for Adolescents)의 개발을 연구한 Galambos, Peterson, Richards, 그리고 Gitelson (1985)의 연구와 Benson과 Vincent(1980)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불일치가 청소년기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유가호의 연구(1994)에서 성역할 정체감 발달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의 자기사회화에 대한 자기통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론과, 장하경과 서병숙(1991)의 연구

에서 남성 대학생들이 여성 대학생보다 성역할 태도가 더 전통적인 결과를 보인 것과도 상통한다. 이와 같이 여학생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가장 진보적인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여성이라는 두 요인의 합일점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남학생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와 여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으로 나타난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반적인 현상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이나 사회, 그리고 문화에서 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Bussy & Bandura, 1992). 더구나, 고등학교 1, 2학년은 민감한 시기이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박아청, 1996),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확고히 성립되지 않은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구를 마친 연구자가 제안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가 부모와 학부모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것으로 한국사회의 성인들의 태도를 파악하였으나, 고등학교 1, 2학년생들로만 청소년을 일반화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함께 조사한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와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념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ornton 등(1983)은 어머니의 태도와 경험이 그들 자녀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이 그들 자신과 자녀들의 태도에 있어서 더욱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강도가 강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더 나아가 부모의 교육수

준과 부모와 자녀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한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각 학교의 선정이 남녀 공학과 남학교, 여학교가 섞여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만약 일괄적으로 모두 남녀 공학인 학교를 선정하였다면 학교간의 차이 비교가 가능할 것이고, 학생과 부모, 교사와의 상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동섭 (2004, 5, 3). 女 보란 듯: 공무원, 기업 공채 시험마다 여성 합격자 급증. 조선일보, A 14면.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영정 (1999). 19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1995). 학령전 아동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for Preschool Children: KSRI-PSC) 개발 연구. 아시아 여성 연구, 34, 183-213.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 김현정 (2000).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준 (2001).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존중감과

- 의 관계연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란 (2004, 4, 19). 여성의원 비율 13%로 꺾춤: 싸움, 비리정치 바뀌야. 중앙일보, 21면.
- 박아청 (1996). 한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 68-78.
- 신보영 (2004, 4, 16). 원내 13% '女風' 거뒀다. 문화일보, 4면.
- 심응철 (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가효 (1994).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1), 127-144.
- 유순희 (2001). 한국여성주의 어디까지 왔나? 여성학연구, 11, 181-207.
- 윤가현 (1991). 전성(Sexuality)교육이 여성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현대사회과학연구, 2(1), 139-147.
- 이경률 (1993). 중학교 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자기평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부연(1993). 부모의 성역할 양육태도와 중학생 딸의 성역할 유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2001). 한국 여성 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 YWCA 운동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상희 (1999).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변화: 세대별 분석. 사회조사연구, 14, 75-108.
- 장종선 (1995).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 정체감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하경, 서병숙 (1991).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9, 117-133.
- 정중희(1983).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현희순, 김양순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1), 249-262.
- Bankart, B. B. (1984). Japanese attitudes toward women. *The Journal of Psychology*, 119, 45-51.
- Beasley, C. (1999). *What is feminism?*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Benson, P. L., & Vincent, S. M. (198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xist attitudes towards women Scale(SATW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5, 276-291.
- Bigler, R. S. (1997).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children's sex typ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53-69.
- Braverman, L. (1988). *A guide to feminist family therapy*. New York & London: Harrington Park Press.
- Brown, L. S., & Brodsky, A. M. (1992). The future of feminist therap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9, 51-57.
- Brown, L. S. (2000). Feminist therapy. In C. R. Snyder & R. E. Ingram (Eds.), *Handbook of psychological change* (pp. 358-380). New York: John Wiley & Sons.
- Bussy, K., & Bandura, A. (1992).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gender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3, 1236-1250.

- Eckardt, M. H. (1994). Karen Horney's feminine psychology and the passions of her time. In M. Berger (Ed.), *Women beyond Freud: New concepts of feminine psychology* (pp. 15-29). New York: Brunner/Mazel.
- Enns, C. Z., & Hackett, G. (1990). Comparison of feminist & nonfeminist women's reactions to variants of nonsexist & feminis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3-40.
- Erickson, E. H. (1963). Identity: Youth and crisis. In B. B. Wolman(Ed.),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Jersey: Prentice-Hall.
- Friedan, B. (1963). *The feminine mystique*. New York: Dell.
- Frieze, I. H., & McHugh, M. C. (1998). Measuring feminism and gender role attitud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 349-352.
- Galambos, N. L., Petersen, A. C., Richards, M., & Gitelson, I. B. (1985).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for adolescents(AWSA):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Sex Roles, 13*, 343-356.
- Hall, C. S., & Lindgey, L. (1978).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rdie, E. A., & McMurray, N. E. (1992). Self-stereotyping sex role ideology, and menstrual attitudes: A social identity approach. *Sex roles, 27*.
- Horney, K. (1967). *Feminine psycholog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Kiecolt, K. J., & Acock, A. C. (1984). The long-term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gender-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09-717.
- Kirkpatrick, C. (1936). The construction of a brief-pattern scale for measuring attitudes toward feminis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 421-437.
- McHugh, M. C., & Frieze, I. H. (1997). The measurement of gender-role attitud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16.
- Matsuyuki, M. (1998). Japanese feminist counseling as a political act. *Women & Therapy, 21*, 65-77.
- Mill, J. S. (1970). The subjection of women. In A. S. Rossi (Ed.), *Essays on sex equality* (pp.123-24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P. H., & Scholnick, E. K. (2000). *Toward a feminist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 London: Routledge.
- Osgood, C. E. (1952).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meaning. *Psychology Bulletin, 49*, 197-237.
- Parry, G. (1983). A British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s women scale(AWS-B).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261-263.
- Rice, T. W. & Coates, D. L. (1995). Gender role attitudes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Gender & Society, 9*, 738-750.
- Robbins, J. H., & Siegel, R. J. (1985). *Women changing therapy*. Binghamton, NY: Harrington Park Press.
- Rybarik, M. F., Dosch, M. F., Gilmore, G. D., & Krajewski, S. S. (1995). Violence in relationships: A seventh grade inventory of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23-251.
- Smith, M. D. & Self, G. D. (1980). The congruence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 sex-role attitudes: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105-109.
- Spence, J. T., & Hahn, E. D. (1997).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nd attitude change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4.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2).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n objective instrument to measure attitudes toward the rights and roles of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Journal Supplement Abstract Service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6.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1975). A short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W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 219-220.
- Thornton, A., Alwin, D. F., & Camburn, D. (1983). Causes and consequences of sex-role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211-227.
- Tong, R. (1993). *Feminine and feminist ethic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 Twenge, J. M. (1997). Attitudes towards women, 1970-1995.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35-51.
- Williams, J. E., & Best, D. L. (1990). *Measuring sex stereotypes-A multinational study*. Newbury Park, CA.: Sage.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5, Vol. 10, No. 3, 405-427

Attitudes toward Feminism in Korea: Adolescents, Parents, and Teachers

Erina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of the attitudes toward feminism between women and men, and its difference by age. Respondents were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in high school, their parents, and their teachers at 6 different schools in the Seoul area. The respondents were a total of 1393 people; 605 students (M = 249, F = 356), 592 parents (M = 253, F = 339), and 196 teachers (M = 106, F = 90). The scales were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AWS) and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DS) for feminism and the open questionnaire. The result showed that women had more advanced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feminism than men. And the highest score of respondents among men was lower than the lowest score among women, where we can recognize how the difference of the attitudes toward feminism of the two sexes is distinctive. In general, the adolescents had the most positive attitudes. In comparison of each sex, the female students had more advanced attitudes and the mothers had the most negative and traditional attitudes toward feminism among women. The male teachers were more positive and advanced than the adolescents and the fathers among men. Among the differences of each sex group, the adolescents' difference was the most distant. Therefore, the male adolescents' attitudes were still very traditional.

key words : feminism, attitudes toward feminism, attitudes toward women, sex-role attitudes

1차 원고접수: 2005. 8. 29.

심사통과접수: 2005. 9. 16.

최종원고접수: 2005. 9. 23.

- | | | | | | | | |
|--|---|---|---|---|---|---|---|
| 9. 한 가정 안에서 딸은 아들만큼 많이 공부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7 |
| 10. 여성이 기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남성이 셔츠 단추를 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 1 | 2 | 3 | 4 | 5 | 6 | 7 |
| 11. 일반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7 |
| 12. 여성은 결혼 전에는, 심지어 약혼자와도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1 | 2 | 3 | 4 | 5 | 6 | 7 |
| 13. 여성의 자리는 자신의 직업을 갖는 것보다 오히려 집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데에 있다. | 1 | 2 | 3 | 4 | 5 | 6 | 7 |
| 14. 여성은 전통적 방식으로 숙녀 취급을 받는 것 보다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과 자유를 갖는 것이 더 낫다. | 1 | 2 | 3 | 4 | 5 | 6 | 7 |
| 15. 여성은 남성보다 산업과 사업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적게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7 |
| 16. 여학생도 남학생만큼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7 |
| 17.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밤늦게 까지 밖에 있을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7 |

부록 2. 개방형 응답의 범주화 기준 분류표

=====
+: 1점

긍정적. 발전적. 남녀 평등. 바람직. 여성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

1번: 능력있다. 훌륭하다. 바람직한 생활. 열심히 산다. 당당한 여자. 용감하다. 부정적인 면도 표현했지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 (예; 남녀 평등과 여성 상위시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 긍정적 강함. 현명한 생각. 똑똑하다. 당연.

예; 나도 동참해야 하는데... 여성의 지위가 아직도 낮다고 생각. 남녀가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 가는 것. 권리찾는 용기있는 사람들.

2번: 뿌듯할 것이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사회에서도 내가 차지 하는 비중과 일을 하는 느낌 든다. 용기있는 딸의 행동에 박수치고 도와 준다. 강하게 잘해 나갈 거라는 생각. 남자들처럼 여자라기 보단 한 사람처럼 주장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것. 여성스럽다는 개념과는 먼 거리. (여성이 사회에 관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3번: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성차별 행위의 남녀 평등 시기가 확대될 것 같다. 그러나, 과한 여성주의는 연차별의 문제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 여성들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 여성도 정치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여성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좋은 일 한다. 나쁜 일이 아니다. 미래적이고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 아무리 토를 달아도 ‘여자니까’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0: 0점

무답,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생각없다. 긍정적 답과 부정적 답이 함께 기록.

답이 애매(예; 딱딱하고, 아직 좀 생소하며 신비롭다). 확실하지 않은 답. 관련 없는 답. 여성주의를 잘 모르는 답.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기록 한 것. 중간 단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확실히 반대도 찬성도 아닌 것(너무 거기에만 전념하지 말라고 한다. 반대는 안한다).

1번: 멋있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생각난다. 남성주의로부터 피해의식을 겪은 여성이 생각난다. 여성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적인 면 봤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듯(불만이 많을 듯). 때론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좀 그런 이미지다. 여성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든다.

2번: 여성을 위해 일하니 좋지만 한편으로는 반대할 것 같다. 개인의 생각이 중요. 당당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기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거 같다. 나쁘지 않을 듯. 이제 이런 시대가 왔구나.

3번: 중간 단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모른다. 잘 해 낼 수 있을까. 사회발전에 기여하나 배우자와의 여성주의로 인한 갈등이 악화되어 이혼으로 갈 수도 있다. 그 피해는 자녀에게.

- : -1점

부정적인 답. 긍정적인 것 같으나 부정적인 답이 더 강한 답. 여성중심. 여성만 위한 것. 여자만 생각.

1번: 그 시간에 집안 일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 남녀 평등을 지나친다. 강한 느낌. 편중된 시각. 자연의 섭리를 거슬리는 것. 위계질서 파괴. 평등 사라진다. 우리 정서에 안 맞다. 골치 아프다. 반대 세력 생각난다. 아직 별 의미 없다고 생각. 성차별 없는데 이상하다.

2번: 당황스러울 것. 딸에 대해 걱정을 할 것 같다. 인정 안한다. 역편견 우려. 걱정(부정적)이 앞선다. 실망한다. 맘에 들지 않는다. 힘든 길 택했다. 어려움이 많을 거다. 걱정 된다. 절대 반대. 별로다. 여성이 주인

이 되어 남자를 거느리는 것. 남자다운 것이 여성화되는 느낌.

3번: 사회 구조 안정성에 악영향. 남성들이 무기력해 질 것 같다. 남성 배척과 여성우대의 불평등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 여성이 주도. 남성들의 세력이 없어지는 나쁜 일. 여성은 어려울 때만 남성을 찾고 조금 차별 당하면 차별한다고 큰 소리치고 여성주의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득보다 실이 많다. 사회 분열 조장. 여성운동을 하는 여자를 여성주의자라 한다면 그들도 사회에 찌든 자들과 다름이 없다. 여권신장에(나쁜 의미로) 큰역할했다. 의무없는 권리가 정당한가 모르겠다.